조계종 내년 예산 965억원…분담금 회복

일반회계 312억원 · 특별회계 653억원 편성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코로나19 시기 감면한 분담금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 추진
일반 · 특별회계예산 모두 인상
'천년을세우다'에 42억원 편성

불기2568(2024)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이 올해 대비 10% 이상 늘어난 약 965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면한 중앙 · 직할분담금을 감면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그동안 축소된 모든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312억1600만원, 특별회계 653억6848만원이다. 올해보다 일반회계는 10.21%, 특별회계는 23.04% 늘어났다.

일반회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2020년 수준으로 회복한 중앙 및 직할분담금이다. 조계종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국사찰의 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분담금을 10% 감면한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분담금 예산은 중앙 11.36%, 직할 6.74%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 문화재구역입장료 감면비 보조에 따른 조정으로 문화유산분담금이 올해 45억9000만원에서 66억7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총무부는 내년 종단개혁 30주년 기념행사와 하반기 전국불교도 결집대회,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불교도결집대회는 불교도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신심과 원력을 확인하는 행사로,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획실은 종단조직 분석연구, 전통사찰 입법관련 용역, 22대 총선 대비 정책 제안 등을 추진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여러 차례 시대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을 예고한 데 맞춰 연구가 진행된다.

재무부는 여러 부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었다. 세금과 공과금 등의 인상, 시설장비 유지 등이 반영됐다. 또 사찰환경진단 모니터링 지표 개발비를 비롯해 조직개편 이후 진행될 부서 이동 시설비도 포함됐다. 반면 문화부는 대규모의 불교미술 · 불교문화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면서 내년에는 예산이 소폭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는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

특별회계는 내년 사업이 마감되는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과 전법회관 건립, 2027년까지 계속되는 10.27법난 기념관 사업, 천년을세우다 특별회계 편성 등이 중심이다. 우선 양평 문화재 연구시설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제3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인 천년을세우다는 특별회계 42억원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추진된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뿐만 아니라 명상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보급과 시연 행사, 세계 선명상 대회 개최, 명상센터 장소 선정과 시설계획 정리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예산, 한국문화연수원 시설 개 · 보수 자부담 예산, 일반직 종무원 명예퇴직금 충당금 적립 등도 반영됐다. 예산안 심의 · 결의는 오는 11월 1일 개원하는 제22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진행된다.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10월 19일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은 코로나로 축소된 종단의 모든 활동을 정상화하고자 그동안 감면한 분담금 규모를 2020년 수준으로 회복해 편성했다"며 "불교중흥의 토대를 닦는 각종 사업들을 짜임새 있게 조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조계사 새 주지에 담화 스님

총무원장 진우 스님, 10월 18일 임명장 수여



한국불교 1번지이자 조계종의 총본산을 상징하는 서울 조계사 새 주지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담화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담화 스님에게 조계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부장 성화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 · 실장스님들과 중앙종회의원스님들,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 등이 배석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사는 총무원 직영 사찰이고 조계종의 총본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사 주지는 어떤 사찰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담화 스님은 종회를 비롯해 조계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담화 스님은 "원장스님 말씀을 잘 받들겠다. 총무원 부장스님을 잘 모시면서 신도님들과의 화합을 이뤄 기도성취 도량으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담화 스님은 성오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하고 금강정사 · 김포 연운사 주지를 주지를 지냈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호계원 사무처장, 제16~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진각종조 정신 되살려 교화하자"

진각종, 회당대종사 열반 60주기 추념불사 봉행



진각종(통리원장 도진)은 10월 16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회당대종사 열반 60주기 추념불사'를 봉행하고 종조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사진〉

추념불사에는 경정 총인을 비롯해 기로스승 혜정 정사, 수성 정사, 인의회 의원 덕일 정사, 통리원장 도진 정사, 현정원장 능원 정사, 교육원장 효명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상명 정사, 위덕대 총장 회성 정사를 비롯한 종립학교장, 서울교구 스승과 유가족, 총금강회장 정명각자를 비롯한 신교도들이 참석했다.

이날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추념사를 통해 "세월은 거침없이 흘러 종조열반 60주기를 맞이했다.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종단 발전의 염원을 다진다"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발전시킬 불사는 포교와 교화의 확장이다. 종조정신을 새롭게 되살려 포교하고 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구청장 신혜 정사는 "회당대종사님의 무진서원에 귀명하며 종단의 실천이념인 생활불교, 실천불교가 이 땅에 뿌리내려 일체중생들이 심인진리에 제도되고 밀엄정토가 구현되기를 서원한다"고 강도발원 했다.

신중일 기자

사격 높인 공찰주지, 중창주 권리 주어질까

조계종 종헌종법특위, 사찰법 개정안 논의 시작

2013년 삭제된 조항 되살리고
공찰 운영 동기부여 취지 담아
구체적 기준 마련해 상정키로

사격을 크게 일신한 공찰 주지의 중창주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주지스님들이 보다 굳은 원력으로 공찰을 운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사설사암의 양성화를 막기 위해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 ·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만당)는 10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사찰법 개정안은 중창주의 권리를 규정한 제23조에 '쇠락하고 피폐한 공찰의 사격 및 역할을 현저히 격상시킨 경우' 라는 호를 신설했다. 중창주는 입적할 때까지 당해 사찰의 주지 추천권을 갖는다.

위원장 만당 스님은 개정안에 대해 "본사주지 선거에 의해 논공행상을 할 때 해당 공찰에 공로가 큰 스님들이 더 이상 주지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공찰 위상이 꺾이기도 한다"며 "공찰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지의 공로를 인정해야 사설사암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찰법 개정안에 추가된 중창주 권리 부여 조건은 지난 2013년 3월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삭제된 자격조건과 같다. 조항 삭제 이후 10여 년 만에 해당 자격을 다시 추가하자는 것. 삭제 당시에는 쇠락과 피폐, 격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가 지배적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중심의 조문이 문제로 제기됐다.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신설된 조문의 단어들이 법률용어로 적절치 않다"며 "이대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무에서 통용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만당 스님은 "세부적인 기준을 일일이 종법에 나열할 수 없어 종령으로 다루면 된다"고 했지만 비교적 개정이 쉬운 종령 대신 종법에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원 스님(대흥사)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조문들은 명확하게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스님들은 사찰 규모나 재정 확대, 포교 성과, 대사회 역할 등 공찰의 사격 일신 공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결산기준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분류한 사찰등급이 거론되기도 했다. 낮은 등급의 사찰을 높은 등급까지 올릴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는 예상치 못한 혼란을 막기 위해 "중창주 권리 부여를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원스님들은 대다수가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내년 3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시간을 두고 개정안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현행 중창주의 권리 심사는 교구본사 주지가 총무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한 2인과 호계원장이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된 '중창주심사위원회' 가 중창주 인정여부를 심사한다.

윤호섭 기자

석불사 · 연세한강병원, 승려복지 MOU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성화)는 10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마포 석불사 · 연세한강병원 승려복지 업무협약식' 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석불사 스님은 병원에서 접수와 진단, 입원, 치료, 간병, 퇴원 절차 등에 신속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스님뿐만 아니라 사찰 신도들 역시 병원에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고 진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은 승려복지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찰에서 연세한강병원을 적극 홍보, 더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승려복지회는 석불사와 연세한강병원의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사찰과 전문병원의 승려복지 MOU 체결사업을 전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2024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단체 신청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승가결사체를 구성해 재가불자들과 함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 불교의 길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인증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공고일 ~ 2023년 11월 30일(목)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함)

신청자격
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나.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
* 전법교화활동 예시
①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 · 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②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③ 인권 · 노동 · 환경 · 통일 · 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④ 참선 · 선무도 · 문화(영화 · 음악 · 미술)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⑤ 위 ①내지 ④에 준하는 활동으로써 교육원장이 인증하는 전법교화활동
*** 우대사항 : 출가장려 활동**
※ 제외대상 : 법인, 사찰, 중앙종무기관의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 받는 단체
(포교 · 신도단체, 전법단 등 유관단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발성 사업 등

신청서류
가. 인증 신청서 나. 단체 현황
다. 정관 라. 회원명단 마. 전법교화활동 계획서
※ 신청양식 다운로드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접속, 종무행정 – 종무자료실 – 승가결사체 검색(각종양식)

지원사항
가.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승려에게 당해 연도 연수점수 50점 부여
(활동기준 : 연 2회 이상 회의, 연 6회 이상 전법교화활동 충족 시)
나.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 활동단체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접수 및 문의
가. 우편접수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
나. 이메일 접수 : thkim@buddhism.or.kr
다.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 02-2011-1801

결과발표 2023년 12월 중
* 결과발표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합니다.

불기 2567(2023)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범 해